

전 세계 러브콜... 한국 단색화 거장

100만달러 쾌척... '광주비엔날레 예술상' 제정 박서보 화백 지난해 경매 낙찰액 196억원... 고향 경북 예천에 미술관 건립

“일평생 그림을 그려온 선배이자, 예술가라는 동료로서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92)이 17일(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에 '광주비엔날레 박서보예술상' 상금 100만달러를 쾌척했다. 재단은 박 화백이 기탁한 재원으로 설립된 기지문 화재단과 함께 내년부터 2042년까지 '광주비엔날레 박서보예술상' 운영한다. 매 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 1인(팀)에게 1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견인한 박 화백은 '단색화의 거장'으로 불리며 수행하듯 반복해서 선을 긋는 '묘법' 연작으로 이름을 알렸다. 1956년 반국전 선언의 주역으로, 1957년 국내 최초의 앵포르멜 작가로 한국 현대미술사에 각인된 그는 1970년대 이후로는 단색화의 기수로 독보적인 화업을 일궈왔다. 또 홍익대 미술대학 학장을 지내고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자이자 행정가로도 한국 현대미술계에 이름을 남겼다.

지난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의 제목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였던 것처럼 그의 전 생애는 과감한 시도와 도전으로 이어졌다. 그의 대표작인 '점묘' 시리즈는 둘째 아이가 어릴 때 글자를 쓰려다 맘대로 되지 않자 연필로 마구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다. 캔버스에 유백색 물감을 칠하고 연필로 굵기를 반복한 연필 묘법, 한지와 색채를 재발견한 중기 지그재그 묘법, 손의 흔적이 제거되고 깊고 풍부한 색감이 강조된 후기 색채묘법 등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런던 화이트큐브에서 회고전이 열렸으며 파리 퐁피두 센터, 미국 MOMA,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등 세계 유수 기관에 작품이 소장

돼 있다. 박 화백의 작품은 경매에서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낙찰 총액 196억원(222점)을 기록했으며 국내 최고 낙찰 기록은 11억원, 해외는 2018년 소더비 홍콩경매에서 기록한 19억 4000만원이다.

박 화백은 또 지난해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고향 경북예천에는 오는 2025년, '박서보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기지재단'은 활동의 거점이라는 의미와 상황에 대응하는 지혜와 기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청년들의 장르를 불문한 새로운 창작활동에 주목하고 세계를 각성시키는 건강한 대립함으로써 기성이 아닌 신선, 오버가 아닌 언더그라운드, 메인인 아닌 서브컬처를 후원한다. 또 다양성이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와 그 성원의 문화 소양은 문화융성의 토대임을 인지하고 경제 가치보다 예술성과 문화 가치를 좇는 지역 커뮤니티를 후원한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이 지난 2016년 이후로 중단됨에 따라 이번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수준 높은 전시와 함께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는 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2021년 9월 서울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 참석,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서보 화백. /연합뉴스



“일쭉 ‘열림굿’ 올해 첫 공연 시작합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10일 목요일 열림국악한마당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빛고을국악전수관(광주시 서구 금호동)이 10일 오후 7시 목요일 열림국악한마당 올해 첫 공연을 펼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목요일 열림국악한마당은 광주의 대표적인 국악 상설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국악 관현악, 실내악, 가야금·아쟁·거문고·독주회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 왔다. 매년 40여회의 공연에, 매회 120여명 이상이 관람하며 인기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무대는 2월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모두 40차례 열린다.

개막공연에는 타악그룹 일쭉(사진)을 초청해 열림굿, 설장구, 부포놀이, 모듬북과 사물놀이 등을 선보인다. 특히, 열림굿은 문을 여는 굿으로 2022년 임인년 관객들의 무병장수와 평안, 그리고 목요일 열림국악한마당 모든 공연이 성황리에 마

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박정아명창의 판소리 연구소 남도민요 공연이, 24일에는 사단법인 풍류회 죽산방의 광주 향재풍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오는 3월에는 오은수 가야금 연주회를 시작으로 전남도립국악단 임서연의 '심청가' 공연, 남도전통춤가락연구원 박승영 원장의 '전통춤', 소리꾼 한지연의 판소리 무대, 김형석의 대금연주 등이 펼쳐진다.

매회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악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시인이 들려주는 '삶의 노래'

김기리 시인, '기다리는 시간은 아직 어리고' 펴내

구례 출신 김기리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기다리는 시간은 아직 어리고' (문학들)를 펴냈다.

올해 85세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이 들려주는 삶의 노래는 진중하면서도 깊다. 모두 50여 편이 실린 작품집은 '마치 오랜 풍상을 견뎠던 벼랑의 맑고도 깊은 울림' 같은 이미지와 시어를 담고 있다.

시인은 결코 짧지 않은 삶의 여정을 '풍경 독서'에 비유한다. "까무룩 잠들었다 문득 깨어 보면 어느새/ 길의 도착 지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인생을 노래한 대목은 연륜과 삶에 대한 통찰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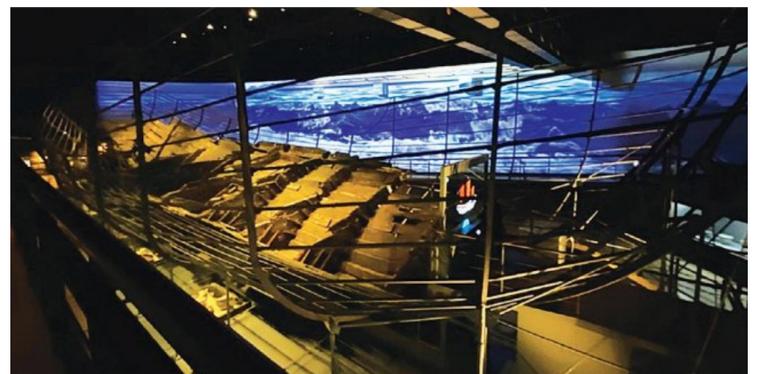
"초로의 어린 학생들 사이로 나무언어 교실이 있다./ 바람을 문자로 읽는 소리가 서로 영기고 있다.// 나도 나무를 가르치는 숲속 교실 하나 만들고 싶어진다./ 바람을 선생님이 모시고/ 칠판은 그늘에게 부탁하고..."

위 시 '나무언어 학원'은 나무를 가르치는 '바람'의 이야기와 그늘이 '칠판'이 되는 모습을 동화적 감성으로 그리고 있다. 사유와 이미지, 발상이 여든이 넘는 이의 사유라고는 보이지 않을 만큼 맑고 회화적이다. 오랜 기억을 특유의 관조와 성찰의 언어로 덧입혀내는 것은 내면에 드리워진 시심이 그만큼 맑고 경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은 "시는 대체로 노인의 시가 아니라 장년의 시였다"며 "고리타분하거나 구태의연한 시가 아니라 심상한 상상력과 날렵한 표현이 속출하여 아연 긴장하면서 끝까지 읽게 되었고"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리 시인은 조선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와 광주대 대학원 문장학과를 졸업했으며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3년 '아동문학'에 동시, 2004년 '불교문학'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오래된 우물', '내 안의 바람' 등을 펴냈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한국불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 아트, 신안선을 품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 신안선 내부 영상 공개

신안선은 1323년 중국에서 일본을 향해 가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중국 원나라의 무역선이다. 1975년 어부가 처음 발견했으며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신안선 선체는 실물 복원돼 해양문화재연구소 내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유물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상설전시 중인 신안선 주위에 미디어아트 영상 '바다, 신안선을 품다'를 공개중이다. (사진) 문화재연구소는 신안선 벽면을 활용 45미터의 대형 미디어아트 영상을 상영하고,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에 내부를 담은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특히 벽면 미디어아트 영상은 바다를 주제로 한 영상과 바닷속 울림을 재해석한 음악이 어우러져 생동감을 연출한다.

대형 모니터는 관람객이 신안선에 탑승해 선실 창문을 통해 배의 내부를 감상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아울러 신안선 실물 위로 14세기 향해하던 당시 모습을 그래픽으로 복원한 영상이 투명화면을 통해 신안선 위로 겹쳐 보이도록 연출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선착순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2022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단체)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백래쉬 등 새로운 폭력 유형에 따른 교육수요를 반영, 동일기관 최

대 2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분야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가 기관으로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1회당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